

이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사회복지사·26)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후보에 투표할 생각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양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결혼·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박다현 (광주여성민우회 소장·45)



성평등을 위해 투표하려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성별 임금 격차도 거꾸로 1위, 출생률도 나쁜 쪽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출산 육아를 위해 경력 단절을 고민하지 않았으면, 가족의 식사 준비로 시간의 자유를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한다. 시간과 공간에서 안전을 위한 주의를 좀 덜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투표한다.

임태성 (요한이네할인매장 대표·48)



목포시 부주동에 거주하며 요한이네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에 5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장기채납자가 8년 만에 증가하고 있다. 당분간 물가도 3%대를 유지하면서 소비시장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비해 전남 지역은 지역소멸과 인구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고충이 상존하고 있다. 생명의 땅 전남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할 생각이다.

성진수 (광주시청 근대5중 선수·32)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투표할 예정이다. 최근 전문체육이 생활체육에 비해 관심도와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비인기종목 선수 발굴 육성도 어려운 형편이고 전문체육에 지원과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비인기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체육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에게 한 표를 던질 생각이다.

박지뉴 (취업준비생·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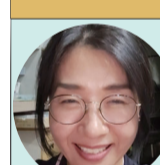
대학을 졸업하고 국비학원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다. 우리 광주·전남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타 시도로 떠나고 있다. 청년이 떠난 도시는 도태되고 낙후될 것이다.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이다. 투표해야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오성재 (순천농협 청년이사·36)



고령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들의 조화를 통해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인물이 당선되길 바란다. 청년들이 농업할 수 있는 땅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거나 저금리로 기계를 임대할 수 있었으면 한다. 생산품 구매 자금을 지원하거나 선진지 농업 분야 연구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투표를 통해 청년 농업 소득의 안정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판로 지원 확대, 실습 위주의 영농 교육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박은희 (간호조무사·56)



30년간 식당을 하다 4년 전부터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됐다. 지금은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의료인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됐다. 근무 시간 및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는 의료인이 대부분이다. 의사 수를 늘리고 의료 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에도 힘 써주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온 국민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나는 ○○○○위해 투표한다

‘선택의 날’이 다가왔다. 4·10 총선이 10일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여·각 정당이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내걸고 맞붙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대격변이 전망된다.

총선은 향후 4년간 광주·전남 사·도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소중한 한 표 행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총선은 지역을 넘어 국가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기도 하다.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31.28%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사전투표율은 각각 38%와 41.3%에 이르며, 뜨거운 투표 열기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마다 선거에 대한 생각과 투표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마음만은 같을 것이다.

투표소로 향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관련기사 2·3면

신문의날 대체휴무... 10일자 신문 쉽니다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하비는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하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